

신간소개 | Books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쿠바 - 경제적·사회적 변화와 사회주의의 미래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 김기현 (엮은이)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출판일: 2014-03-31

ISBN(13): 9788946056749

376쪽 | 223*152mm

국내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산실,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학계뿐 아니라 대중에게도

전달하고자 기획한 ‘라틴아메리카 지정학’ 시리즈 그 네 번째는 카리브해의 사회주의국가 쿠바를 다루었다. 《누에바 소시에다드(Nueva Sociedad)》216호(2008년 7-8월)와 242호(2012년 11-12월)의 쿠바 특집편과 라틴아메리카 비판적 사회과학을 다루는 중요 저널들인 《오살(OSAL)》(12권 30호, 2011년 11월)과 《크리티카 이 에만시파시온(Critica y Emancipacion)》(3권 6호, 2011년 하반기)에서 가려 뽑은 논문들을 번역하고 역저자의 쿠바 관련 논문 두 편도 함께 실었다.

“많은 사람들이 쿠바에서 발생하고 있는, 발생해야 할, 발생할 ‘변화’에 대해 매우 몰두하고 있는 것은 신기해 보인다”라는 쿠바 작가의 말은 세계의 관심의 얼마나 쿠바의 ‘변화’에 쏠려 있는지 보여준다. 쿠바의 사회주의는 붕괴할 것인가 중국처럼 변화할 것인가 또는 제3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쿠바의 변화를 통해 예측해 보는 쿠바의 미래 방향일 것이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브라질 - 변화하는 사회와 새로운 과제들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박원복, 양은미 (옮김)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출판일: 2014-0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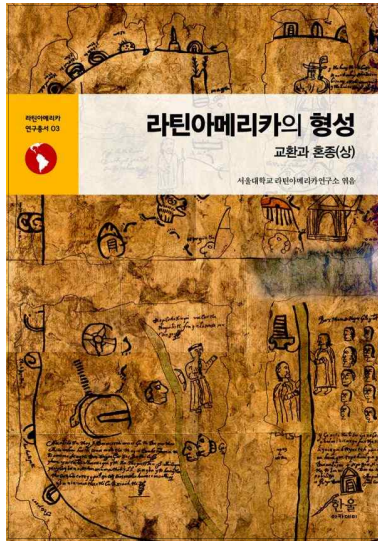
ISBN(13): 9788946056909

422쪽 | 152*225 mm

국내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산실,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학계뿐 아니라 대중에게도 전달하고자 기획한 ‘라틴아메리카 지정학’ 시리즈 그 다섯 번째는 브라질이다. 대국 브라질에 걸맞은 정보와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브라질 사회의 다양한 분야 현안과 배경 해결점을 모색한 연구를 선별해 《누에바 소시에다드》 201년과 2013년 포르투갈어 특집판과 상파울루 대학 발간 학술지에 실린 논문 등을 번역했고 국내 브라질 관련 논문 몇 편을 가려 실었다.

룰라 재임기 브라질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경제위기로 IMF 긴급구제금융을 지원받았던 국가가 몇 년 후 채무를 모두 갚고 100억 달러의 차관을 IMF에 빌려줄 정도로 경제 성장과 안정을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기간 국민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빈익빈 부익부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족기금 등 포용적 정책을 펼쳐 빈곤층의 획기적 감소를 이루었다. 룰라의 뒤를 이은 지우마 호우세피 정권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집권 초기에 전임 대통령 룰라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리더십을 보여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 환경에도 직면해 있다. 이 책은 브라질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가를 담았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라틴아메리카의 형성 - 교환과 혼종 (상, 하)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역은이)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출판일: 2014-05-30

ISBN(13): 9788946056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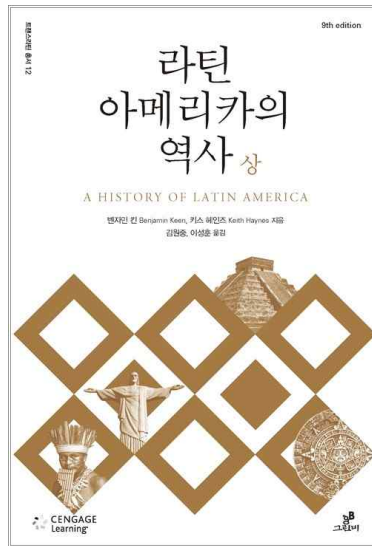
440쪽 | 223*152mm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는 2008년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한국(HK)사업에 선정되어 21세기 인류 역사에서 라틴아메리카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

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2년 이미 1단계 연구결과물로 <라틴아메리카의 전환 : 변화와 갈등>(상, 하)을 출간한 바 있고 이번에 출간하는 이 책은 그 2단계 연구결과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다양하게 펼쳐지는 대항해게모니운동과 다양한 이념적, 정치적 기획들이 표출되는 현재 모습의 원인이 지난 30~40년간의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아메리카 발견, 정복 후 500년간의 근대성의 위기가 중층적,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인식이 1단계 연구결과의 핵심 내용이다.

2단계 연구인 이 책에서는 아메리카 발견, 정복 후 500년간의 근대성이 곧 식민성의 다른 얼굴이며, 근대/식민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성립과 성장 진화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단순히 화석화된 역사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의 역사를 통해 21세기 인류에게 트랜스모더니티의 가능성을 위한 길을 제시한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상, 하)

벤자민 킨, 키스 헤인즈 (지은이) | 김원중, 이성훈 (옮긴이)

출판사: 그린비

출판일: 2014-05-30

ISBN(13): 9788976825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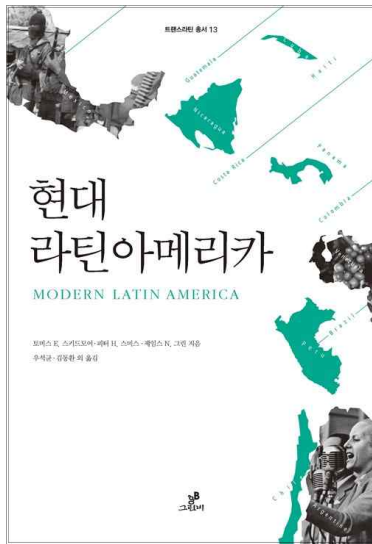
692쪽 | 220*150mm

‘트랜스라틴 총서’ 12권. 1980년 〈간략한 라틴아메리카의 역사〉(A Short History of Latin America)라는 제목으로 처음 출간된 이래, 오늘날까지 30여 년 동

안 아홉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꾸준히 읽히고 있는 권위 있는 라틴아메리카 역사 입문서이다.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진 역사 전체를 포괄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깔끔한 구성과 평이한 문체로 쓰여져 있어 복잡하고 광범위한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각 장의 초입에 제시되고 있는 각 장의 핵심문제와 간략한 연표, 그리고 풍부한 도판과 지도 자료 역시 라틴아메리카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이렇게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폭넓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쓰여졌다는 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벤자민 킨과 키스 헤인즈가 이 책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한 가지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저자들은 라틴아메리카의 발전을 증진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위기의 악화,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종속의 심화만을 불러왔다고 비판하면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의 좌파 정권들의 집권(분홍 물결)과 쿠바의 사회주의적 모델의 가능성과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현대 라틴아메리카

토머스 E. 스킴모어, 피커 H. 스미스, 제임스 N. 그린 (지은이) | 이성형, 우석균, 김기현, 황보영조, 박구병, 정이나, 김동환, 이준희, 최해성 (옮긴이)

출판사: 그린비

출판일: 2014-05-30

ISBN(13): 9788976825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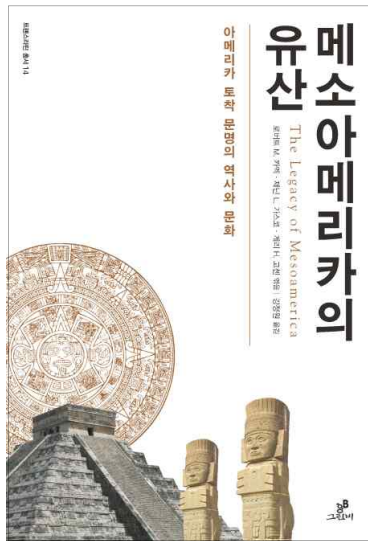
768쪽 | 220*150mm

종합적이고도 균형 잡힌 시각과 나라별, 분야별 사례 연구와 통계 자료를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다양한 모습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이 책은 먼저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지 시대를 개괄한 후, 서유럽으로부터의 독립 과정과 경제 성장 과정, 그에 따른 사회의 변화, 그리고 현재까지의 정치와 정책의 변화를 각 국가별로, 소지역별로 압축적으로 개괄한다.

마치 지도를 훑어 내려오듯 멕시코부터 아르헨티나까지 그 각각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 갔는지 분석하고, 정치적 변화에 있어서 각 국가 간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시대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문화 예술 분야의 변화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본문 사이마다 적절한 통계 자료와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일화를 소개하고, 사회상에 관한 국가별 비교 사례 등을 제시하여 이 지역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최근의 변화상들까지 홈페이지(www.oup.com/us/skidmore)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이 책은 초판 출간 이래 30년간 영미권 독자들에게 널리 읽혀 온 바와 같이 한국 독자들에게도 손꼽힐 만한 라틴아메리카 입문서가 될 것이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메소아메리카의 유산 - 아메리카 토착 문명의 역사와 문화

로버트 M. 카맥, 제닌 L. 가스코, 게리 H. 고센
(지은이) | 강정원 (옮긴이)

출판사: 그린비

출판일: 2014-05-30

ISBN(13): 9788976825346

992쪽 | 220*150mm

메소아메리카는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일대(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북부)를 포괄하는 광범

위한 지역으로 올메카, 테오티우아칸, 마야, 사포테카, 아스테카 등 고대와 현대를 가로지르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문화 공간이다.

『메소아메리카의 유산: 아메리카 토착 문명의 역사와 문화』는 메소아메리카 토착민들의 삶과 문화라는 관점에서 메소아메리카의 변동을 서술한다. 로버트 M. 카맥, 제닌 L. 가스코, 게리 H. 고센을 필두로 열세 명의 북미 고고학자, 역사학자, 인류학자 등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이 책은 다양한 연구방법론, 풍부한 사료와 고고학적 자료 분석, 심층적인 문헌 조사, 문화기술지 사례 분석을 통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메소아메리카의 복합적인 사회 구성과 문화적 전통을 연구한다.

문명사의 특정 단계(기원이나 스페인 정복 이전 등)에 머무르거나 부분적인 측면들(예술, 건축, 신화 등)에 한정되어 있었던 기존의 메소아메리카 연구와는 달리, 이 책은 개별적으로 묘사되던 여러 문명을 메소아메리카라는 개념으로 묶어, 문명이 특정 시기에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까지 상징적·물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전개된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즐거움

김우성, 박윤주, 유왕무, 윤영순, 이강혁, 이상원, 이상현, 이성훈, 전용갑, 조구호, 황수현 (지은이)

출판사: 스토리하우스

출판일: 2014-03-10

ISBN(13): 9791185006048

400쪽 | 223*152mm

라틴 아메리카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살아 숨 쉬는 가까운 문화권이다. 전 세계적 혁명의 아이콘이 된 체게바라나 축구영웅 펠레와 마라도나, 팝스타 리키마틴을 알며, 또한 우리는 타코나 토르티야를 먹고 데킬라를 마신다. 그리고 우리는 프리다 칼로의 그림을 보고, 영화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을 보며, 『백년동안의 고독』을 읽는다.

이렇게 멀지만 가까운 라틴 아메리카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독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책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11명의 라틴 아메리카 전문가들이 모여 라틴 아메리카 역사, 정치, 지리, 문화 등 전공분야를 살려 각 부분을 맡아 저술 하였다. 따라서 교양서적으로 쉽게 제작했지만 각 부분의 질적 수준 또한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다양한 사진자료들과 지도가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보충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도와줄 것이다. 이러한 시각자료들은 라틴 아메리카를 여행하려는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행을 계획하는 시작단계에서 라틴 아메리카를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입문서가 될 것이며 여행챕터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인 가이드북으로써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로베르토 볼라노 컬렉션 - 전17권

로베르토 볼라노 (지은이) | 이경민, 남진희, 송병선, 권미선, 우석균, 김현균, 박세형 (옮긴이)

출판사: 열린책들

출간일: 2014-05-25

ISBN(13): 9788932926667

350쪽 | 188*128mm

〈스페인어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로베르토 볼라노의 소설 작품 컬렉션이 완간되었다. 로베르토 볼라노는 1993년 데뷔한 제2의 마르케스가 강림했다는 흥분으로 라틴 아메리카를 뒤흔든 대형 작가다. 그는 『야만스러운 탐정들』로 로물로 가예고스상을 수상하며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문학가로 우뚝 섰다. 그의 작품에는 문학의 역할과 악(惡)의 근원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담겨 있다. 그 후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 오랫동안 정치적 망명에 내몰리며 쇠약해진 볼라노는 자신에게 곧 다가올 죽음을 예감하고 수술도 미뤄 가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집

필한 필생의 역작 『2666』을 남기고 5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문학은 1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간되며 독자들에게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 미국에서부터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고, 이를 가리켜 〈볼라노 전염병〉이라는, 작가에게 불기엔 너무도 병적인 독특한 용어가 나오기도 했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브라질 어젠다 - 브라질인의 눈으로 본 현대 브라질의 48가지 모습

릴리아 모리츠 슈바르츠 (지은이) | 박원복 (옮긴이)

출판사: 세창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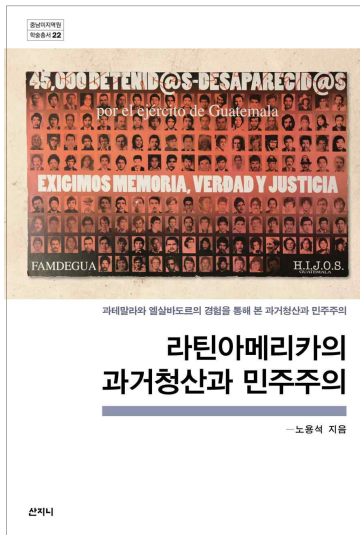
출판일: 2014-05-20

ISBN(13): 9788955862027

696쪽 | 176*124mm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브라질은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린다. 『브라질 어젠다』는 브라질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자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으로부터 주요 의제를 분석한다. 즉, 경제적·정치적·문화적·지적·심미적 등 다양한 양상과 현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브라질 사회의 변화를 관찰하며 의문을 품는 것이다. 나아가 현실을 반영하는 일련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주목하면서, 자기 성찰과 비판으로 새로운 브라질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독자들은 이제까지 우리에게 거의 소개된 적이 없는 노년, 젠더, 인디오, 환경 등이 포함된 21세기 브라질 사회의 주요 의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라틴아메리카의 과거청산과 민주주의

노용석 (지은이)

출판사: 산지니

출판일: 2014-05-30

ISBN(13): 9788965452522

224쪽 | 223*152mm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등 중미(Central America) 지역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과 과거청산, 민주주의 복원 과정을 서술한 책이다. 2008년 당시 한국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무고하게 학살당한 민간인의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을 담당했던

저자 노용석은 유해 발굴 선행 사례를 조사하다 70년대부터 독재정권이 시작된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접한 뒤 아르헨티나와 페루, 과테말라 등지에 설립된 유해 전문 발굴 기관에 관심을 갖고 이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다.

책에서 저자는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과거사정리가 단순히 과거의 문제로만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민주주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였다고 말한다.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과거사를 ‘지나간 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정치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중미 지역은 ‘후진국’ 정도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과거청산 측면에서는 상당히 수준 높은 시민사회 세력이 존재한다. 이들의 손으로 과거청산이 진행되고 따라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 역시 계속된다는 점은 한국전쟁기의 민간인 학살과 치열한 민주주의 투쟁을 거쳤던 대한민국 사회의 과거청산이 절망이 아닌 희망을 향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언어적 다양성과 언어 정책

김우성 (지은이)

출판사: 산지니

출간일: 2014-0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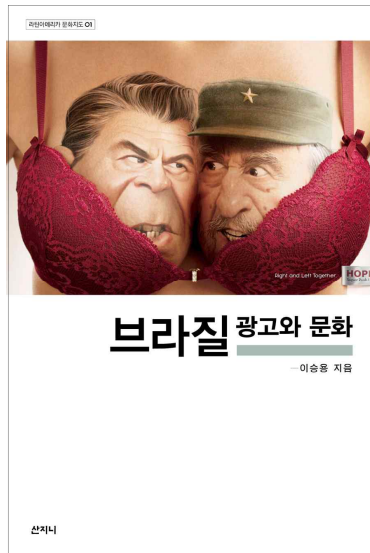
ISBN(13): 9788965452515

276쪽 | 223*152mm

흔히들 라틴아메리카의 언어를 스페인어로 한정지어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다른 유럽 언어들도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식민 이전의 원주민

어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의 학술총서로 기획된 이 책은 이처럼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언어상황과 다민족으로 구성된 이들의 문화와 언어정책 등을 되짚어 본다. 특히 이 책은 중남미 각국의 독자적인 언어규범 확립에 대한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라틴아메리카가 겪은 역사, 사회적 변동에 따라 식민지 본국인 스페인과는 다른 차별성을 갖기 위해 각국이 어떠한 언어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정책을 펼쳐왔는지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 라틴아메리카가 시행해온 언어정책과 함께 독립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보이는 언어 민족주의에 대해 논하였다. 라틴아메리카 언어상황과 언어정책을 살피는 한편, 1990년대 이후 추진된 라틴아메리카 언어정책과 원주민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라틴아메리카 대부분 국가의 공용어인 스페인어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 논하였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스페인어는 국가마다 다양성이 존재하는 집합체라고 저자는 바라보고 있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브라질 광고와 문화

이승용 (지은이)

출판사: 산지니

출판일: 2014-0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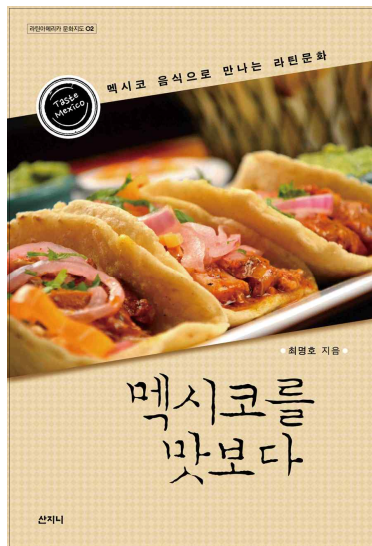
ISBN(13): 9788965452492

264쪽 | 223*152mm

축구의 나라, 브라질. 드디어 스무 번째 월드컵이 브라질에서 열린다. 그러나 축구를 뺀 브라질에 대해 우리는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국토 면적이 세계 5위, 남미대륙의 4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칠레와 에콰도르만 제외하고 남미의 모든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이다. 아프리카계 흑인, 유럽계 백인 그리고 현지 원주민이 혼혈을 통해서 아주 다양하고 폭 넓은 피부색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대중적으로는 아프리카풍의 흑인 또는 혼혈 문화이고 상류 백인 계층은 유럽의 백인문화인 이중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브라질이 지니고 있는 문화의 다양성과 인종의 혼종성은 브라질만의 독특한 색채임에는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브라질 문화의 원형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브라질 광고는 브라질 사회에서 인종과 관련된 브라질 사람들의 생각을 엿보게 하는 문화의 창이기도 하다.

브라질 사람들은 광고를 단순히 물건을 홍보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로 보지 않고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이러한 작품성은 브라질 사람들의 낙천성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문화와 연결된다. 저자는 우리와 전혀 달라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브라질 문화를 다양한 광고의 사례로 접근한다. 광고를 대하는 브라질 사람들의 태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브라질 사람들의 속내도 알아본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멕시코를 맛보다

최명호 (지은이)

출판사: 산지니

출판일: 2014-05-30

ISBN(13): 9788965452539

320쪽 | 223*152mm

부산외국어대학교 최명호 연구 교수의 멕시코 음식문화를 소개하는 책. 1장 ‘멕시코 음식문화’에서는 멕시코 음식문화의 전반을 소개한다. 멕시코 요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소스 살사(Salsa)에 한 절을

할애해 멕시코 음식에서 살사가 어떤 위치인지, 종류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만드는지 등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2장 ‘코스별 멕시코 음식’은 애피타이저와 음료, 고기, 생선, 샐러드, 후식에 이르는 식사 순서에 맞춰 그에 속하는 멕시코 음식을 이야기한다. 3장 ‘지역별 멕시코 음식’은 여행객들에게 특히 유용할 장이다. 멕시코 31개의 주와 1개의 특별주를 테완테펙 지협, 멕시코의 중앙고원, 태평양 연안 유럽풍의 중앙고원 지역 등 음식의 동질성을 지닌 지역별로 구분하고 각 지역과 대표 음식, 추천 식당을 소개한다.

마지막인 4장 ‘키워드로 보는 멕시코 음식과 문화’에서는 감귤류인 레몬, 라임, 리몬, 스다치를 비교한다거나 살사와 함께 멕시코 음식의 처음과 끝을 담당하는 몰레(Mole)를 소개하는 등 아기자기한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졌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사막의 기적? - 칠레북부 홍망성쇠의 문화와 지역개발신화

조경진 (지은이)

출판사: 산지니

출판일: 2014-05-30

ISBN(13): 9788965452508

292쪽 | 223*152mm

칠레 북부 이키케 지역의 홍망성쇠의 문화와 지역개발신화를 다룬 문화인류학 책이다. 이키케는 칠레 북쪽 아타카마 사막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항구도시로

비옥한 남부지역과 달리 척박한 사막지역이어서 수천 년 동안 정착민이 없었다. 그러나 19세기 이키케 지역에 초석 붐(1879~1929)이 불면서 경제부흥이 일어났고, 다른 도시의 이민자들이 유입해 오면서 척박한 도시에 항구와 지역민이 생기기 시작했다. 당시 영국과 스페인, 프랑스, 그리고 이어서 미국의 투자자들은 내륙불모지에 광산을 세워 초석을 채굴, 수출하였고, 이탈리아와 크로아티아 등에서 온 이민자들은 장사할 기회를 쫓아 이곳에 정착했다. 그러나 단일품목 생산 또는 단일 사업형태에 집중된 이곳 경제활동은 외부충격에 취약했고, 다시 쇠퇴기를 겪으면서 결과적으로 반복적인 홍망성쇠를 경험하게 된다.

군사독재하에 이뤄진 경제개발, 과열된 부동산 투기, 노동운동의 태동과 지역민의 국민되기 등은 머나먼 이국 땅 칠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에게 낯선 사건들이 아니다. 무엇보다 저자는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현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에 집중한다. 칠레 북부 사람들의 개인사와 지방사, 역사를 한 편의 소설처럼 흥미롭게 풀어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 남아 있는 개발신화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